22년 同行 마감, 조계종 포교원·불교여성개발원

조계종은 여성단체 설립 추진, 개발원은 범종단 시사

1월 28일 여성개발원 단체 해지
"종헌종법 우선 지시거부" 사유
개발원 내부에선 운영진 비판도
포교원, 여성 단체 설립도 예고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여성포교를 위한 조계종 포교원과 불교여성개발원의 동행이 1월 28일 포교단체 해지로 22년만에 마감됐다. 조계종 포교원이 조계종 여성단체 설립을 추진하는 만큼 여성포교 현장에서의 큰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은 1월 28일 교계언론 공고를 통해 불교여성개발원 포교단체 해지를 알렸다.

불교여성개발원의 포교단체 해지는 지난 2018년 원장 선출을 두고 포교원의 임명권에 반하는 불교여성개발원 측이 조계종 종헌종법 우선적용 조항을 삭제하며 이뤄졌다.

조계종 포교원은 "지속적으로 여성개발원에 이사장 권한 회복과 정관 복구를 지시하였으나 이사진들이 따르지 않았으며, 기자회견을 통해 포교원 방침을 따를 수 없음을 공식 천명했다"며 "포교원은 종헌종법을 수호하고 포교단체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뼈를 깍는 아픔을 안고 1월 28일자로 불교여성개발원 포교단체 해지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교단체 해지에 따라 불교여성개발원은 더 이상 '대한불교조계종'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종단의 각종 지원 역시 중단된다.

포교원은 "종도 의무를 방기하고 종단 지도를 거부한 여성개발원 이사들은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소속사찰, 각종 위원회 등에서 소임을 맡아 활동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04년 11월 30일 불교여성개발원 2대 원장 취임식 모습. 당시 포교원장 도영 스님과 명성 스님을 비롯해 종단 안팎의 많은 기대를 모았다. 조계종과 여성불자들의 열정이 서린 22년의 역사가 이제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불교여성개발원은 해지에 앞선 1월 26일 서울 불교여성개발원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지 후 발전특위 구성과 정관개정, 조직개편 등을 예고했다.

김선옥 원장은 "포교원의 공헌에 감사하며 새 역사를 준비하겠다. 책임있는 적법한 자율적 운영을 기반삼아 사회적 실천에 헌신하며 불교발전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조계종 포교단체 해지가 개발원 정체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 조치였다고 강변했다. 조계종 포교원이 제안한 정관 개정 복구가 불교여성개발원의 운영에 심대한 타격을 입힌다는 것이다.

불교여성개발원은 "포교원이 제정하려한 새 종령에서 이사를 5~7인으로 축소하고 반수 이상을 포교원 관계자로 구성하는 것은 포교원 의사결정권을 강화, 개발원 정체성 및 자율성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불교여성개발원은 조계종 포교원에 대해 감사를 표명했다. 김 원장은 "포교원이 개발원 창립을 주도했고, 그동안 많은 지원으로 개발원 성장에 큰 역할을 한 점을 알고 있다. 해지와 관계없이 포교원의 공헌에 감사하다. 독립하더라도 앞으로 다시 우호적인 관계로 변하기를 바란다"고 의사를 표명했다.

불교여성개발원이 해지를 앞두고 감사를 표명했지만, 당장 눈에 띌 정도의 관계 변화는 어려울 전망이다. 수많은 대화 속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해 해지된 것이기 때문이다.

조계종 포교원도 대안으로 조계종 여성포교단체 설립을 추진할 것임을 천명했다. 조계종 여성단체가 이번 사태로 사라지게 됨에 따라 종단 여성포교를 담당하는 기구 설립 목소리가 높았다.

여기에 불교여성개발원 측의 '정관 개정 거부' 결정 과정에서 '공의를 모으지 않았다' 는 내부 비판이 이어지는 것도 이러한 결단을 뒷받침했다. 여성개발원에서의 회원 이탈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을 보듬을 조직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조계종 포교원은 "여성포교에 대해 새로운 조직적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기존 여성개발원 회원 중 포교원 지도 방침을 따르고자 하는 분들을 포함해 종단 각분야 활동 여성불자를 모두 포괄하는 여성 포교단체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교여성개발원이 조계종 지원으로 창립됐고 22년간 종단 후원 속에 성장, 해지 과정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 끝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향후 여성포교의 방향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담마끼띠 스님, 韓·스리랑카 불교총괄

고타바야 대통령, 1월 19일 인증서 전달

국가 차원서 불교교류 권한 부여


아산 마하위하라 사원 주지 담마끼띠 스님이 한국·스리랑카 불교 총괄자로 위촉됐다.

아산 마하위하라 사원 주지 담마끼띠 스님이 대한민국·스리랑카 불교 총괄책임자로 위촉됐다. 스리랑카가 국가 차원에서 대한민국과의 교류창구로 스님을 임명하고 불교 총괄책임자로서의 권한을 부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스리랑카와 한국 불교계의 대외교류·협력관계에 있어서 담마끼띠 스님을 공식적인 소통창구로 인증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은 1월 19일 담마끼띠 스님에게 '대한민국·스리랑카 불교 총괄 총책임자(쁘다나 상가나야까, padhana samgha nayaka) 인증서' 를 전달했다. 스리랑카 정통교단 라만야파 종정 마쿠라웨 위마라 스님과 집행위원회가 인증을 증명했다.

스리랑카는 해당 인증서를 통해 담마끼띠 스님을 2500년 스리랑카 불교를 계승하는 라만야파 수도자임을 국가 공인했다. 이와 함께 담마끼띠 스님이 그동안 한국에서 불법 홍포와 포교에 매진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내 복지서비스 제공에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하고 앞으로 세계를 위한 위대한 봉사를 지속할 수 있는 총괄권한을 부여했다.

고타바야 대통령은 불교총괄책임자로 위촉된 담마끼띠 스님에 대해 "한국 첫 스리랑카사원 건립불사를 이끈 공로자이자 스리랑카 스님으로서 한국 최초의 교수로 활동하면서 스리랑카 재한이주민들 위한 큰 도움을 제공하고 한국과 스리랑카 교류 발전에 이바지했다"고 존경의 예를 표했다. 이와 함께 담마끼띠 스님이 그동안 스리랑카에서 마하위하라 파운데이션(복지재단)을 설립해 학교를 건립하고 장학금 전달과 의료 지원,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학용품 전달과 우물 파기 등 많은 봉사활동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치사했다.

담마끼띠 스님은 "한국에 계시는 스리랑카 스님들과 함께 더욱 더 열정적으로 포교에 힘을 쓰겠다"며 "앞으로도 두 나라 교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은호 기자

설 맞아 취약 어르신 위한 떡국·쌀 나눔 이어져

조계종사회복지재단, 1월 25일 원각사 급식소서 떡국 선물

불광사, 십시일반 쌀 1000kg도
조계사, 500세대에 식재료 선물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나누기 위한 특별한 나눔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민족의 명절 설을 앞두고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보인)**은 1월 25일 탑골공원에서 '자비의 떡국 나눔 행사' 를 개최하고 사회복지원각(대표 원경)이 운영하는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를 찾은 어르신 500명에게 떡국꾸러미를 선물했다.

이번 나눔행사는 오랜 기간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활동해 온 김동철 후원자가 소외이웃 나눔 행사를 위한 기금 500만원을 기탁하면서 이뤄질 수 있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기탁금으로 우리쌀 떡국떡 255kg, 한우곰탕육수 500kg를 마련했으며 ㈜강남제비스코에서 후원한 KF94 마스크 2000개와 매일유업에서 지원한 음료 500개도 함께 준비했다.

이날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직접 요리해 전달하지 않고 각자 가정에서 언제든지 요리 할 수 있도록 떡국꾸러미를 만들어 배포했다. 꾸러미는 우리쌀 떡국떡 500g 1봉지, 한우곰탕육수 500g 2봉지, 과일주스 1개 등 설 명절에 즐기는 음식들로 구성됐으며 코로나19 방역물품인 KF94 마스크 5매도 동봉됐다. 떡국꾸러미와 함께 갓 지은 쌀밥과 제육볶음, 콩나물로 구성된 도시락도 함께 전달됐다. 자원봉사자로 조계종 자원봉사단 화목회와 반야사 1팀에서 10여 명이 동참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 스님은 인사말에서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시기이지만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과 함께 어르신들을 응원하고 있다"며 "떡국 나눔을 통해 따뜻한 마음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각사 주지이자 조계종 사회부장 원경 스님은 어르신들에게 "든든한 후원으로 맛있는 음식을 어르신에게 공양 올릴 수 있어 기쁘다"며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마주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서울 불광사·불광법회(주지 진효)**도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를 찾았다. 불광사 주지 진효 스님은 2020년부터 불광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보현행자바라밀 천일기도 600일 회향 및 설날을 맞아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에 자비의 쌀 1000kg을 후원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1월 25일 탑골공원에서 '자비의 떡국 나눔 행사' 를 개최하고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를 찾은 어르신 500명에게 떡국꾸러미를 선물했다.

이번에 전달된 자비의 쌀은 신도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모은 것이라 의미가 크다. 진효 스님은 "보현행원을 실천하는 의미를 담아 동참대중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은 것"이라며 "오랜 기간 노인무료급식소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에도 큰 원력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원경 스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지 않은 양이라 송구한 마음이지만 우리 부모들께 공양 올리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계사(주지 지현)와 가피봉사단(단장 김문주)**도 1월 26일 '2022년 행복한 떡국 나눔' 을 진행했다. 이날 조계사는 종로구청을 통해 관내 500세대에 1500만 원 상당의 떡국 및 식재료 키트를 선물했다. 선물세트는 떡국떡을 비롯해 초코파이와 국수, 햇반과 생필품 등으로 구성됐으며, 종로구 17개 동 주민센터 450곳과 장애인단체 50곳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가피봉사단과 신도분들이 떡국나눔을 위해 포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눔의 행복이 느껴졌다"며 "관내 어르신들께서 따뜻한 새해를 맞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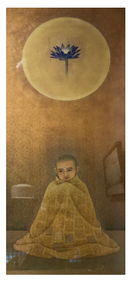
KUmuda 복합명상문화센터 오픈기념 특별소장전 '因·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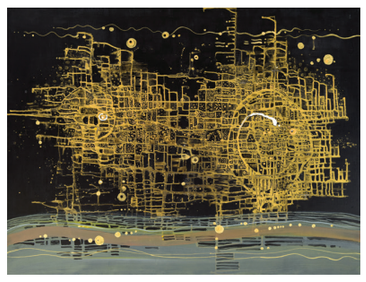


성파스님 作_천고임조비


일장스님 作_태평가


박경귀 作_자비


이도규 作_카오스에서 카오스로


김윤희 作_빛의 공간1

아름다운 영혼의 벗 KUmuda 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쿠무다 복합명상문화센터 개관식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문화예술도량 쿠무다는 포교 원력을 더욱 굳건히 하는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여러 큰스님의 선화와 글씨 그리고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최고의 작품을 선보이는 이 전시가
코로나19의 전 지구적 어려움 속에서도 한 줄기 빛과 같은 감동과 위안의 선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문화예술의 새로운 방향을 열어갈 이 자리에 꼭 동참하시어 화장장엄세계華藏莊嚴世界의 꽃 피워주시길 간절히 염원합니다.

■ 부산 2월 16일~18일, 파라다이스호텔 1층 시실리룸 051-702-1300
(오프닝 16일 오전11시)
■ 서울 2월 23일~3월 8일, 인사아트센터 제1전시장 02-736-1020

KUmuda
문화를 넘어 행복을 만들어가는 곳
부산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41 전화 051)702-1300